

‘실증도시 광주’서 스타트업-대·중견기업 동반성장 도모

내일부터 이틀간 ‘창업페스티벌’ 스타트업·투자자 510곳 등 참가 창업기업 판로개척·성장 지원 창업아이템 기술이전 기회도 제공

광주광역시시는 28~29일 이틀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240개 스타트업과 270개 투자자, 국내외 대·중견기업 14개사가 참가하는 지역 최대 ‘2024 광주창업페스티벌(Gwangju Startup Festival, GJSF 2024)’을 개최한다.

이번 창업페스티벌은 ‘실증도시 광주’를 주제로 ▲개막식 ▲전시 및 체험 ▲컨퍼런스·포럼 ▲투자유치 IR ▲마켓·네트워킹 ▲부대행사 등 총 6개 분야의 행사를 진행한다.

28일 열리는 개막식에서는 스타트업과 대·중견기업, 투자자 등이 협력 세레머니를 통해 ‘실증도시 광주’에서의 동반성장을 다짐한다.



2024광주창업페스티벌 포스터. /광주광역시

스타트업 170개사와 대중견기업 16개사, 창업유관기관 6개사 전시관을 만나볼 수 있다. 특히 올해에는 창업기업제품 실증지원사업에 참여한 25개 실증 제품을 경험하는 ‘실증 빌리지’를 선보인다. 실증 빌리지에서

는 현재 광주시 전역에서 실증하고 있는 제품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으며, 행사 기간 중 참관객을 대상으로 전시 해설도 제공한다.

광주시는 ‘실증 Q&A관’을 운영해 실증지원사업을 안내하고, 실증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의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수요기관과의 매칭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창업기업 제품에 대한 수요기관, 투자사를 초청해 전시참가 스타트업에 직접적인 만남의 기회를 제공한다. 또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실증 테크니컬 투어’도 열린다.

이밖에 글로벌 스타트업 투자유치 IR, 산업은행 넥스트라운드 등 총 6회의 투자유치IR 행사를 통해 창업기업의 도약·성장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지역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이전받고자 희망하는 (예비)창업자 대

상으로 ‘창업아이템 기술이전’ 기회를 제공하며, ‘대학연합 창업경진대회’를 통한 대학팀의 창업 아이템도 선보일 예정이다.

올해 창업페스티벌은 일회성 행사를 탈피해 국내외 창업생태계와 사전 네트워킹 행사를 올 2월부터 총 14회 진행했다. 이를 위해 스타트업아우토반코리아, IBK창업, 삼성 C-Lab, 호반그룹, 효성 및 비온사이노베이터, DH글로벌, 호원, 오피노스 등 국내외 대·중견기업 등이 참가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번 광주창업페스티벌은 ‘미래를 이끄는 실증도시 광주’를 위해 기업과 투자자, 기관이 함께 모여 협력하고 소통하는 기회의 장이 될 것”이라며 “우수한 혁신기술을 가지고 있는 창업기업들이 광주로 찾아오고, 창업기업이 지속 성장해 지역경제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광주=양수영 기자 ysn6313@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밀양시

‘소상공인의 날 기념식’ 성료

밀양시는 25일 밀양시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린 ‘2024년 밀양시 소상공인의 날 기념식’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밀양시 소상공인연합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지역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강한 의지와 단합된 모습으로 어려움을 이겨낸 1만 4000여 명의 밀양시 소상공인들을 위로하고, 침체한 지역 소상공인들의 사기를 북돋아 연대 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안병구 밀양시장, 박상용 국회의원, 허홍 밀양시의회 의장, 소상공인연합회 회원 및 각종 단체 회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밀양(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산청군

‘경남도4-H대상’서 4개상 수상

산청군은 ‘제44회 경남도4-H대상’에서 도지사 표창 등 4개 상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수상에는 ▲4-H육성 우수회원 도지사 표창에 박상민 산청군4-H연합회 부회장 ▲경남4-H대상 청년4-H 우수회원에 김준민 산청군4-H연합회원 ▲공로상에 김수연 산청군 주무관 ▲4-H단체 우수 사례 장려에 산청군4-H연합회 등이 이름을 올렸다.

108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산청군4-H연합회는 농업뿐만 아니라 지역 내 다양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산청(경남)=이도식 기자

여주시

민원처리 평가 7년 연속 ‘우수’

여주시가 ‘2024년도 전라남도 이송 고충 민원 처리실태 평가’에서 도내 우수기관으로 7년 연속 선정됐다.

여주시에 따르면 도내 22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평가는 전라남도에서 시군으로 이송된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 실태를 평가하는 것으로, 도민이 원하는 선제적 민원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한다.

평가는 ▲민원처리기한 준수 여부 ▲민원처리 적극성·갈등해소 노력 ▲민원 관련 행정이행사항 이행 여부 ▲권익위 민원 답변안 준수 여부 ▲민원인 통지방식 준수 여부 등 6개 항목에 대해 1차 자체평가와 2차 현장평가를 거친다. /여수(전남)=전정신 기자 spirit@

해남군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지급

해남군은 2024년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대상자를 확정하고 11월 말까지 지급완료할 계획이다.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사업은 임업인의 낮은 임가소득을 보전하고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의 지속적인 향상을 위해 임업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제도로 2022년 시작하여 올해 세 번째 시행되고 있다.

군은 지난 4월부터 신청을 받아 자격요건 검증 및 이행점검 절차를 통해 지급 대상자 105명을 확정했다. 총 지급규모는 702ha, 5억 1031만원이다. /해남(전남)=이대호 기자 eogh7505@

(AI, 빅데이터, 블록체인)

대구시, ABB 산업 활성화 박차 ‘SGA그룹 통합연구소’ 구축

SGA그룹, 2028년까지 420억 투자 IT 연구개발 인제 90명 신규채용 sLLM 기반 챗봇시스템 등 개발

대구시는 지난 25일 대구시 산격청사에서 IT보안 전문기업 SGA(주)(대표 박재한)와 수성알파시티 내 ‘SGA그룹 통합연구소’ 구축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SGA그룹은 통합 IT보안, 응용소프트웨어, 블록체인 전자서명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8개 계열사를 보유한 IT전문 기업으로, SGA(주)와 SGA솔루션즈(주) 등 주요 계열사가 코스타에 상장되어 있다. 그룹은 2028년까지 총 420억 원을 투자해 수성알파시티에 7층 규모의 통합연구소를 건립하고, IT 연구개발 인제 90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다.

/대구=김준환 기자 kih9@

SGA그룹은 이번 투자로 소형언어 모델(sLLM) 기반 대화형 챗봇 시스템과 AI 기반 차세대 보안 시스템 개발을 대구에서 본격화한다. 특히, SGA(주)의 본사 연구소를 대구로 이전하고, SGA솔루션즈(주)와 보이스아이(주) 등 3개 계열사의 제2연구소를 통합해 수성알파시티를 IT 연구개발의 중심지로 삼을 예정이다.

이번 투자 유치는 수성알파시티가 지난 6월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이후 첫 사례로, 대구시는 이를 계기로 역의 ABB(AI, 빅데이터, 블록체인) 기업 유치와 지역 ABB산업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동으로 추진 중인 글로벌 AI 전환 연구개발 허브 생태계 강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기장군, 탁월한 토지행정 성과 인정받아

장관상, 우수기관 선정 등 쾌거

기장군은 토지행정 분야에서 탁월한 업무성과를 인정받으며 각종 평가에서 수상 소식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경기도 고양시 일산킨텍스에서 열린 ‘제47회 전국 지적 세미나’에서 기장군 토지정보과 김가빈 주무관이 발표한 ‘드론을 활용한 가감지역 관리 방안’이 최우수 연구 과제로 선정되면서, 국토교통부장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날 발표한 ‘드론을 활용한 가감지역 관리 방안’은 지적 측량 성과 검사와 드론 정사영상 활용 업무를 연계한 것으로,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서 적극

행정을 실천한 우수 과제로 큰 호응을 끌어내면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 기장군은 부산시가 16개 구·군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4년 구·군 토지행정 종합평가에서도 높은 업무역량을 인정받으며 지적 재조사 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군은 사업지구인 ‘죽성1지구’와 ‘명례1·2지구’ 지적 재조사 사업을 조기 완료하는 등 큰 성과를 냈으며 사업 추진 및 사업 홍보, 특수시책 등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

이는 지난해에 최우수 기관 선정에 이어 연이은 수상으로, 명확한 토지경계 확립과 지적 불부합해소를 위한 기장군의 노력이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됐다. /기장(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포항시는 2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4년 포항시 최고장인’으로 선정된 4명에게 최고장인 증서와 증패를 수여했다.

포항시, 최고장인 4명에게 증서·증패 수여

기계정비·광학 등 4개 직종 선정

포항시는 25일 시청에서 ‘2024년 포항시 최고장인’으로 선정된 4명에게 대해 최고장인 증서와 증패를 수여했다.

올해의 최고장인은 기계정비 직종의 김구식(씨포스코), 광학 직종의 이철수(주)포스코, 미용 직종의 김수진(부니뜨 김수진 뷰티살롱), 이용 직종의 전용용(성동)으로 4개 직종 4명이다.

선정된 최고장인에게는 증서와 증패를 수여하고, 3년간 매월 10만 원의

기술장려금 지급과 시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지난 8월 공고로 총 10명의 후보자가 접수했고, 서류심사에 통과된 후보자에 대한 관련 직종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최고장인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최종 4명이 선정됐다.

특히 최고장인 선정 요소에는 본인의 기술 숙련도 뿐만 아니라 후진양성, 사회봉사 등 보유 기술을 활용한 사회 기여도까지 평가 요소에 포함됐다.

/포항(경북)=최지용 기자 asdadx@

의령군, 내년 예산안 5223억 규모 편성

올해 예산보다 3.6% 늘어

경남 의령군이 내년도 예산안을 역대 최대 규모인 5223억원 규모로 편성해 25일 군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올해 예산보다 3.6% 늘어난 액수로 미래 기반을 다지는 투자유치 사업 성과와 역대급 공모사업 선정이 최대 규모 예산 편성의 발판이 됐다.

군은 세수 감소에 따른 지방 재정 악화 환경 속에서도 정확한 세입 추계를 통한 예산 편성과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적립 등 선제 대응을 펼쳐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안을 마련했다.

이런 배경에는 민생 안정, 경제 활력, 도시 경쟁력 분야에 꾸준히 투자

해 온 군의 건전 재정 운용의 결실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군 관계자는 설명했다.

군은 교육발전특구 발돋움, 문화·관광 르네상스 시대 개막, 기업 투자 유치 가속화, 도시재생·농촌공간정비 사업 완수, 촘촘한 복지 안전망 구축 등을 5대 역점 과제로 정해 내년도 군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야별로는 농업 분야 1119억, 사회복지 분야 953억원, 국도 및 지역개발 분야 933억원, 환경·보건 분야 584억원, 일반공공행정 분야 304억원, 문화 및 관광 분야 229억원, 산업 및 지역개발 분야 100억원 등의 예산을 편성했다. /의령(경남)=이도식 기자